

메시지 5

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김

성경: 빌 3:3-8

I.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.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를 두어야 한다 — 빌 3:3하.

- A. 빌립보서 3장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모든 어둠함과 타고난 존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.
- B. 이 절들에서 ‘육체를 신뢰하는 것’은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항목들이나 자격들을 가리킨다.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존경할 만하고 사랑스럽고 뛰어난 면들도 여전히 육체이다.
- C.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들은 그들이 육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과 그들의 육체가 처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— 롬 8:8, 갈 5:24.
 - 1. 자기 확신은 육체의 특징이다. 억제되지 않는 육체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자기 확신이다 — 비교 갈 3:2-3.
 - 2. 육체를 신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 — 빌 3:3-4, 10.
- D.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들, 곧 우리의 타고난 재능이나 천성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— 빌 3:3-6.
 - 1. 비록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,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살고, 육체 안에서 행하는 것을 자랑하며, 우리의 타고난 자격들을 신뢰할 수 있다 — 갈 3:2-3.
 - 2. 하나님에 의해 빛 비춤을 받았을 때에만,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자격들이나 재능이나 총명을 참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.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신뢰를 전적으로 주님께 둔다고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— 빌 3:3, 잠 3:5-6.
- E.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자 한다면, 우리는 결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해야 한다.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이다 — 빌 3:3.

II.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은 그분의 인격이 탁월한 것에 기인한다 — 빌 3:8, 마 17:5, 골 1:13.

- A.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그리스도께 속한 지식이나 그리스도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. 그보다 이 지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킨다 — 요 17:3.
 - 1.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‘지식’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그분의 탁월함에 관한 계시 혹은 이상을 의미한다 — 갈 1:15-16, 엡 1:17-23.
 - 2.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을 때에,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극도로 고귀하시고 지극히 보배로우시고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 — 행 9:3-5, 20, 22, 22:13-16, 26:13-16.
- B.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다 — 요 16:13-14, 갈 1:15-16.
 - 1.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중함에 대한 이상과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 — 벧전 2:4, 7, 골 1:12, 15-19, 2:2-3, 9, 16-17, 3:4, 10.

2.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계시를 통해 온다.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— 마 16:17, 11:27, 갈 1:15-16, 요 17:3.
- C.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자 한다면,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가져야 한다 — 빌 3:7-10.
 1.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,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다 — 갈 1:15-16, 2:20, 4:19.
 2.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더 높은 계시가 없다면,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더 높은 체험을 가질 수 없다 — 요일 5:20.
 3.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능가할 수 없다 — 엡 1:17-21, 3:14-19.

III.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— 빌 3:8상.

- A.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에 큰 가치를 두었다. 이것은 ‘내 주’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는데, ‘내 주’라는 표현은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 갖고 있던 친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해 준다.
- B. 바울은 눈이 열려 놀라우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았다. 이러한 탁월함 때문에 그는 종교적으로 유익한 것이든 천연적으로 유익한 것이든,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.
- C.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‘모든 것’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종교적인 것들뿐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을 가리킨다.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 하나하나,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었다.
- D.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더욱더 알수록, 종교적인 모든 것과 천연적인 모든 것을 더욱더 해로운 것으로 여길 것이다 — 빌 3:4-8상.

IV.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며,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— 빌 3:7-8하.

- A.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‘모든 것’은 종교와 철학과 문화에 속한 것들을 포함한다.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, 이것은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대치물, 즉 사탄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사용하는 낚시바늘이었기 때문이다.
- B. 우리는 한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얻는다 — 빌 3:4, 8.
 1.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‘얻고’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‘확보하다’, ‘획득하다’, ‘붙잡다’를 의미한다.
 2.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얻는 것, 즉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다 — 엡 3:8.
 3.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(빌 3:7),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(8절).
 4.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길수록, 우리는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을 것이다 — 빌 3:7-8.